

세월호 오늘 목포로...이제 '진도의 눈물' 닦아주자

수산물 소비·관광객 발길 급감 등 3년간 지역경제 침체 심각 구조·수습 앞장섰던 주민들 하소연도 못하고 힘든 생활 견뎌 기름유출 피해에 어민들 "선 보상" 촉구시위... "유족엔 죄송"

30일 동거차도 어민 이옥영(51)씨는 오전 일찍 바다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주검으로 떠오른 단원고 여학생을 수습했던 이씨는 마을 산꼭대기에 움막짓고 인양 과정을 감시한 세월호 아빠들에게 '동거차 형님'으로 통했다.

그런 이씨의 발걸음이 이날 향한 곳은 물고 반찬거리를 들고 매일 울렀던 산꼭대기 세월호 감시움막도, 마을 앞바다 양식장도 아닌 세월호가 선적된 반잠수식 선박 앞 해상이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어민들과 함께 배를

물고 정부를 향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해상시위에 나선 것이다. 어민 70명이 나눠타 배 17척에는 "양식장 피해, 정부가 선 보상하라", "희생자 가족에 죄송합니다"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씨는 "주민들 모두 세월호 침몰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배를 몰고 달려갔던 사람들이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를 영영 떠나는 날, 해상 시위를 벌여야 하는 어민들 심정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동거차도 앞바다

에 침몰한 세월호가 31일 진도 해역을 영영 떠나 목포신항으로 옮겨간다. 세월호는 '마지막 항해'에 나서지만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진도 주민들은 참사 발생 3주기를 앞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반복된 기름 유출에 따른 어업피해, 진도산 기피 현상에 따른 수산물 매출 급감, 수산시장 매출 감소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참사 직후 온라인 등을 통해 "진도 바닷고기가 희생자들의 살점을 떼어 먹었다"는 괴담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빚어진 진도산 수산물 기피현상도 수그러들지 않아 주민들은 속병을 앓고 있다.

반복돼 온 기름 유출도 어민들을 힘 빠지게 한다. 3년 전 참사 당시 흘러나온 기름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미역·조개류 등 양식어업 분야에서만 어민 224명이 68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

이날 진도군은 해상 시위에 나선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면적으로는 1601ha, 금액으로는 최소 5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피해 현황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진도군·어민이 참여한 합동조사 결과다. 미역과 툇 등 양식어업 피해가 8개 어촌계 37가구(311ha) 16억3000만원, 마을어업권의 해조류 및 패류 피해는 14개 어촌계 497가구(1290ha)로 피해액은 38억7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시위에 나선 동거차도 어민 김창훈(49)씨는 "3년 전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피해보상도 보험사와 소송이 여태 이어지는 등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현지 조사를 나온 보험사 측은 '미역을 채취해 버릴 건 버리고 남은 것은 팔아라. 실사를 거쳐

버린 만큼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부는 뒷집만 지고 있다"며 한탄했다.

양식업 뿐만 아니라 조도·관매도 등 진도 해수욕장, 윤립산방 등을 찾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관광·수산물 유통 분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주민들은 묵묵히 3년을 기다려왔다. '세월호 인양과 시신 수습이 우선'이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허광무 진도군 수산과장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출 감소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양식업, 수산유통 분야 피해가 유독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진도군민의 희생과 봉사를 알고 있다면 정부는 피해 보상에 앞장서고 국민개신 진도산 수산물 애용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단종·낙태 피해 한센인 위자료 삭감 판결 위법 대법 "액수 재산정하라"

강제 로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의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센병으로 국립소독도병원과 부산 용호병원 등에 입원했던 강씨 등은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 단종·낙태 수술 사실을 밝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단종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정도의 차이가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강씨 등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진행 중인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강모씨 등 318명이 낸 3개의 소송을 심리중이다. 서울중앙지법도 강모씨 등 5명이 낸 소송을 조만간 결론 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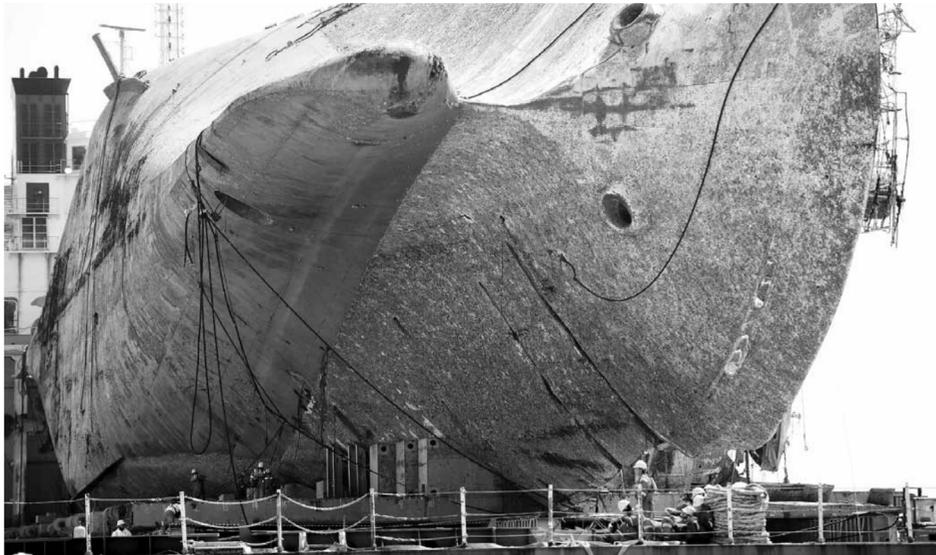
업주에 불만...돈 들고 댄 종업원

○업주가 기본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남자 사우나일금고에 보관 중이던 업주의 돈 140만원 등 200여만원의 현금과 50대 중업원이 경합사형.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찜질방 사우나에서 일하는 정모(50)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께 업주 박모(57)씨가 남자 사우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40만 원과 손님이 맡겨놓은 현금 62만7000원 등 모두 202만7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은 "다리가 불편한 정씨가 충격을 오르내리며 하는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알고 보니 정씨는 사기죄로 수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목포신항 이송 준비 분주 인양된 세월호 선체의 목포신항 이송이 임박한 30일 오후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선체 이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신항 펜스에 진실의 띠 잇는다

목포시민단체 2일 희생자 304명·숨진 잠수사 추모행사 305개 노란우산 들고 미수습자 찾기·진실 규명 촉구

세월호가 거처될 목포신항 철재 담벼락에 거대한 노란띠가 위한다. 다음 달 2일 목포시민들과 전국에서 내려 올 추모객들이 진실규명과 한 명도 빠짐없는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하는 글귀를 적어 일련의 출입이 금지된 목포 신항 펜스에 붙이는 추모 행사를 통해 서다.

목포시민단체 40여개로 구성된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는 주말인 2일 세월호가 거처될 목포신항에서 '기다림의 시간 1083일...그립다, 보고싶다'라는 주제로 추모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추모행사의 첫 순서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우산 프로젝트. 행사 주관 단체가 추모객에게 노란 우산 305개를 나눠주면, 그 우산을 펼쳐 참가자들이 단체로 세월호 모형을 만들거나, 숫자 1083을 만드는 추모 퍼포먼스다.

공연에 쓰이는 노란 우산 305개는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들과 구조 및 시신 수습 작업을 하다 생긴 트라우마로 고인이 된 잠수사 기관총씨를 합친 숫자다.

진도 앞바다에서 옮겨 온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목포신항에서 규명되고 9명의 미수습자들도 모두 수습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아 '진실인양 띠잇기' 행사도 진행된다.

추모객들은 주춧돌이 나눠주는 가로 3cm, 세로 70cm 크기 노란띠에 펜으로 저마다 추모글을 적고나서 목포신항을 둘러싼 철재 담벼락을 다시 한번 둘러싸는 추모 프로그램이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띠를 잇는 추모행사는 '진실은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최측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도보순례가 진행된다. 목포역에서 터미널까지 4km를 시민들과 전국에서 온 추모객들이 함께 걷다가, 목포 시내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가로 50cm, 세로 100cm 크기의 대형 걸개그림을 내걸 예정이다.

양현주 목포공동실천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세월호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과 침몰 원인을 둘러싼 진실규명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낸 추모행사를 준비해왔다"면서 "목포지역사회가 전국에서 온 추모객과 희생자 가족, 미수습자 가족을 맞이하고 보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선체조사위 반잠수선 탑승 현장 조사

목포서 수색 방안 정하고 내달 5일께 미수습자 가족에 제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30일 조사 대상이자 진실규명의 증거물인 세월호에 처음으로 올랐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반잠수식 선박에 이미 승선한 공경영 위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과 유해발굴 전문가인 송장건씨, 유정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30분 진도 서항에서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섰다.

오전 11시40분에 선체조사위원회는 반잠수식 선박에 탑승, 1시간가량 세월호 선

체 곳곳을 살폈다. 위원들은 세월호를 선적한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 심하게 녹슬고 훼손된 세월호와 흘러내린 펄의 상태를 점검했다. 첫 조사가 끝난 뒤 서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창준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목포 신항에서 수색팀과 회의를 하고 조사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수색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미수습자 수습 방안이 마련되면 4월 5일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제시하겠다. 여전히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목포신항 거처후 선체 절단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체조사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 선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먼저다"고도 했다.

같은날 오전 미수습자 가족들도 배를 타고 바다에 떠있는 세월호의 마지막이 될 이날 반잠수식 선박에 실린 세월호를 둘러봤다. 오전 10시30분께 세월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 벌써 이렇게 많이 녹슬었네"라며 다문 양아빠 허홍환(53)씨가 세월호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불과 며칠 사이 눈에 띄게 녹슨 세월호를 보며 '내 아이는 안전한지' 걱정하는 마음이 한층 커진 것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31일 새벽 7시 목포로 향하는 세월호의 마지막 여정을 뒤따라간다. /진도=김현영기자 young@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장성,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평당6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급매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제일 오피스텔
- 20층중 17층, 29평
- 사무실전용, 전망최고
- 내부 인테리어 시설
- 시세 - 8500만원
- 급매 - 5500만원 (일시불 조건)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 **싼**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800만원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 H. 010-3605-5000